

## 세종조 집현전 학사의 교유 양상 연구

-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을 중심으로 -

손 유 경\*

< 目 次 >

I. 들어가며	1. 독서 체험 및 창화시
II. 진관사 사가독서의 배경	2. 편찬 사업의 참여와 學杜 성향
III. 시 작품을 중심으로 본 교유 양상	3. 僧 一庵과의 교유와 聯句詩
	IV. 나오며

<국문 초록>

15세기는 한글 창제, 각종 서적의 편찬, 예악의 정비 등을 통해 조선이 문화적 역량을 채워나갔던 시기다. 이러한 다양한 업적의 중심에는 世宗(1397~1450)과 왕실연구기관 集賢殿이 있었으며, 이들에 의해 조선 초 정치·제도·문화 등의 상부구조가 뼈대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세종의 뒤를 이은 文宗이 재위 2년여 만에 병사하고, 나이 어린 세자 端宗이 즉위하면서 집현전은 권력 싸움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世祖 정권과의 관계에 따른 집현전 학사들의 분열과 입장 차이가 강조되어 이들의 초기 교유 양상은 주목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집현전 학사 중에서 1442년 세종의 명으로 삼각산 진관사 賜暇讀書에 참여했던 朴彭年(1417~1456)·李塏(1417~1456)·成三問(1418~1456)·河緯地(1412~1456)·申叔舟(1417~1475)·李石亨(1415~1477) 6인의 교유 양상을

\*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 [curator98@hanmail.net](mailto:curator98@hanmail.net)

살피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시기와 인물은 세종의 정치철학과 이념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조선 초 엘리트 집단에 한정하였다.

津寬寺와 藏義寺에 체류하면서 서로 수창한 시에서는 휴가를 내려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한편으로 현실 정치 참여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금한 심사가 읽힌다. 그러나 걱정과는 다르게 사가독서를 마친 이후 이들은 뛰어난 실력으로 국가의 각종 편찬사업을 독식하면서 교류를 이어나가게 된다. 그러한 면에서 현전하는 네 편의 聯句詩는 젊은 학자 여섯 명의 관료 문인으로서의 포부와 작가의식을 집약적으로 볼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많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교류양상을 논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다만 자료적 한계 속에서도 이들 6인 간의 교류 정황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어 이를 정리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편폭의 제한과 능력의 부족으로 중국 사신과의 수창 등 공적인 사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고, 安平大君과의 시모임 양상이나 一庵 스님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서술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추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들의 교류양상이 좀 더 입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15세기, 집현전 학사, 사가독서, 연구시, 진관사, 세종

## I. 들어가며

15세기는 창엽의 기틀이 마련되어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은 조선이 문화적 역량을 채워나갔던 시기이며, 한글 창제, 각종 서적의 편찬, 예악의 정비 등 그 성과 역시 상당하다. 이러한 다양한 업적의 중심에는 世宗(1397~1450)과 왕실연구기관 集賢殿이 있었으며, 이들에 의해 조선 초 정치·제도·문화 등의 상부구조가 뼈대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세종의 뒤를 이은 文宗(1414~1452)이 재위 2년 4개월 만에 병사하고, 나이 어린 세자 端宗(1441~1557)이 즉위하면서 癸酉靖難, 端宗 復位 運動으로 이어지는 권력 싸움의 한복판에 집현전이 놓이게 된다.

이 시기 집현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世祖 정권과의 관계에 따른 정치적 分岐를 갖대로 학사들 내부의 분열과 학사들 간의 차이가 많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성삼문을 위시한 사육신 계열에 대해서는 절의의 측면이 강조되고, 신숙주를 위시하여 세조 정권에 합류한 학사들은 권력과 경제력을 모두 가진 훈구 관료로서 문제의식이 결여된 문학을 창작했다는 비판적인 평가가 진행되었다.<sup>1)</sup>

본 논문은 태조~태종대에 마련된 정치·경제적 기반 위에서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만들어내야 했던 세종이 새로운 통치 철학의 정립 및 제도의 정비를 위해 설치했던 집현전<sup>2)</sup> 학사들의 교유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1442년(세종 24) 세종의 명으로 三角山 津寬寺 사가독서에 참여했던 朴彭年(1417~1456)·李塏(1417~1456)·成三問(1418~1456)·河緯地(1412~1456)·申叔舟(1417~1475)·李石亨(1415~1477) 6인의 교유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시기와 이들 6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세종의 정치철학과 이념이 가장 잘 투영될 수 있었던 시기를 선정한 것이다.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학문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을 태종대의 관직을 계승한 초기 집현전 관원들이 물러나고 세종대에 새로 선발된 젊은 학자들이 집현전의 주류를 이루게 된 1428년(세종 10)~1429년(세종 11) 이후로 보는 것<sup>3)</sup>이 학계의 보편적인 시각인데 본 연

1) 집현전 학사에 관한 선행연구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서술은 김남이 「집현전 학사의 문학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p.3-5.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2) 강문식, 「集賢殿 출신 官人의 學問觀과 政治觀」, 『韓國史論』 39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8, p.90. 참조.

3) 집현전 활동의 시대 구분에 대해 최승희(「集賢殿研究: 置廢始末과 機能分析(上)(下)」, 『역사학보』 32집·33집, 역사학회, 1966·1967.)는 초기집현전(세종2년~9년), 집현전 기능의 확대(세종10년~18년), 집현전 기능의 전환(세종 19년~세조2년)의 3기로 분류하였고, 이를 이어받아 정두희(「集賢殿 學士 研究」, 『전북사학』 4집, 전북사학회, 1980.)는 1기(세종2년~10년), 2기(세종 11년~20년), 3기(세종 21년~세종말), 4기(세조 즉위년~2년)의 넷으로 나누었다. 시대 구분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집현전의 기능이 확대되고 본격화된 것을 1428년~1429년으로 보는 것은 동일하다.

구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준용하였다.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의 집현전 初入 시기는 박팽년이 1434년(세종 16)으로 가장 이르고, 이석형이 1442년(세종 24)으로 마지막이다. 따라서 세종대 집현전 학사의 진면목을 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세종대에 처음 시행된 賜暇讀書制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재위 기간 동안 1426년(세종 8)과 1442년(세종 24), 두 번만 사가독서를 시행하였다. 이처럼 사가독서는 일시나 장소, 선발 인원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엘리트 양성 프로그램이었다.<sup>4)</sup> 1426년에는 權紱(1399~1438)·辛石堅(1407~1459)·南秀文(1408~1442) 세 사람만 선발하고 장소도 집<sup>5)</sup>이었으나 1442년에는 인원도 6인으로 늘어나고 장소도 삼각산 진관사<sup>6)</sup>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두 번의 사가독서 시행 중 그 규모가 컸던 후자의 경우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의 교류시를 모아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6인은 세종의 총애를 얻은 인사들로 당대에 내로라하는 문장가요, 시인이었다. 그러나 그중 4인은 단종 복위 운동을 주동하여 사육신이 되었고, 살아남은 신숙주는 절개를 저버리고 영달을 선택한 변절자의 표상이 되어 이들 간의 초기 교류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와 서로 좋은 사이였지만 죽어야 마땅하다.”<sup>7)</sup>라는 신숙주에 대한 성삼문의 평가가 말해주듯 이들 앞

4) 이종목,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 문관들에게 휴가를 주어 책을 읽게 하다」, 『인문정책포럼』 8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p.96. 참조

5) 『世宗實錄』卷34, 「世宗 8年 12月 11日 庚午」, “召集賢殿副校理權紱 著作郎辛石堅 正字南秀文等 命曰 ‘予以爾等除集賢官者 以其年少有將來 祇欲其讀書有實效也 然各緣職事早暮 未暇專心讀書 自今勿仕本殿 在家專心讀書 以著成效 以副予意 其讀書規範 當受卞季良指畫’”

6) 成倪, 『慵齋叢話』卷4, “世宗始設集賢殿 招聚文學之士 朝夕延訪 猶慮文學未振 更選其中年少聰敏者 上寺讀書 供饋甚豐 正統壬戌 平陽朴仁叟 高靈申泛翁 韓山李清甫 昌寧成謹甫 赤村河仲章 延安李白玉 受命讀書于三角山津寬寺 做業甚勤 酬唱不休”

에 ‘교유’라는 말을 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가 집중하고 있는 시기는 왕위 찬탈을 중심으로 두고 ‘죽어야 마땅한’ 사이가 되기 전인 ‘서로 좋은’ 사이였던 시기다. 곧,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전, 풍운의 뜻을 품고 집현전에 들어갔던 20대의 젊은 학사 6인이 남긴 문학작품을 통해 그들의 교유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집현전 학사들은 ‘집현전 학사’라는 문사군으로 묶여 조선 전기 문학을 구성하는 요소로 빠짐없이 거론되었고 그 문학적 역량과 가능성 또한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sup>8)</sup> 특히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6인의 경우, 세종의 사가독서제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니 당대의 문학적 인정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사육신이 된 박팽년, 이개, 성삼문, 하위지의 시문은 현전하는 것이 많지 않다. 따라서 신숙주, 이석형의 문집에 전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살폈으며 뒷날 유고를 모아 발간된 『六先生遺稿』 및 『實錄』의 기록, 각종 필기잡록류의 서술들을 두루 참조하였다. 이를 통해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6인의 교유양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왕위 찬탈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사건의 전후로 달라진 이들의 관계 또한 더욱 극명하게 대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II. 진관사 사가독서의 배경

사가독서제는 卞季良(1369~1430)이 태종에게 처음 제안한 것으로 당대에는 시행되지 못하다가 세종 때 처음 시행되었다. 세종은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고 이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公務에 집중하다 보면 독서에 전념할

7) 『世祖實錄』 卷4, 「世祖 2年 6月 2日 庚子」, “三問曰 … 如尹師路 申叔舟 權擥 韓明澮輩 當先去之 … 叔舟吾所相善者 然死當矣”

8) 김남이, 앞의 논문, 2001, p.5.

수 없으므로 독서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에서 지급하되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독서하도록 하였다.<sup>9)</sup>

## ①

세종이 집현전을 두어 글 잘하는 선비를 모아 수십 년 동안 양성하니,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다. 하지만 아침에 관청에 나가고 저녁에 숙직하여 공부에 전념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젊고 재주와 덕행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 휴가를 주어 산으로 들어가 글을 읽게 하였다. 그 비용은宦에서 부담하되 경사·백가·천문·지리·의약·복서 등을 마음껏 연구하게 하니, 학문이 깊고 넓어 통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되어 장차 크게 쓰일 재목이 되었다. 앞에는 문희공 신석조·승지 권채·직전 남수문이, 뒤에는 문충공 신숙주가 있었으며, 그 외 인물들도 모두 名士였다.<sup>10)</sup>

## ②

세종은 처음 집현전을 설치해 문학하는 선비를 불러 모으고, 아침저녁으로 불러 자문하였다. 그러면서도 문학이 진작되지 못할까 오히려 걱정해 그중에 나이가 젊고 총명한 자를 선발해 절에 가서 독서하게 하고, 비용과 물품을 넉넉하게 대주었다. 正統 7년 임술년(1442)에 평양 박팽년(仁叟), 고령 신숙주(泛翁), 한산 이개(淸甫), 창녕 성삼문(謹甫), 적촌 하위지(仲章), 연안 이석형(白玉)이 왕명을 받아 삼각산 진관사에서 사가독서 했다. 부지런히 공부했으며 시문의 수창 또한 쉬지 않았다.<sup>11)</sup>

①은 1487년(성종 18) 徐居正(1420~1488)이 찬한 『筆苑雜記』의 기록이며, ②는 1525년(중종 20) 간행된 成俔(1439~1504)의 『慵齋叢話』에 실린

9) 이종묵, 앞의 논문, 2011, p.99.

10) 徐居正, 『筆苑雜記』 卷1, “世宗設集賢殿 聚文學之士 培養數十年 人材輩出 尙慮朝衙夕直 不專意講讀 選年少有才行者數人 許暇遊山讀書 官給供具 肆意於經史 百子天文地理醫藥卜筮 淹貫該博 無所不通 將爲大用之地 前有辛文僖碩祖 權承旨採 南直殿秀文 後有申文忠公叔舟 餘皆名士也“ (서거정의 『필원잡기』 해석은 박홍갑 역, 『필원잡기』, 지만지, 2008.을 참조하였다.)

11) 원문은 주6) 참조. (성현의 『용재총화』 해석은 김남아·전지원 외 옮김, 『용재총화』, 휴머니스트, 2015.를 참조하였다.)

내용이다. 사가독서 시행의 배경 및 선발 기준, 학업 내용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세종은 자신의 자문기구인 집현전의 학문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 관원에게 집중적으로 학문만을 연마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이른바 유급휴가제를 도입하였다. 당시 임금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집현전은 侍講과 왕실 교육을 담당하면서 필요에 따라 때로는 外交官, 史官, 試官, 知製教, 使臣, 風水學官으로서의 역할<sup>12)</sup>까지 겸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므로 그 업무가 과중하여 개인적으로 학문을 연마할 여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세종은 ‘집현전’ 학사 중에 ‘나이가 젊은’ 인재를 선발하여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휴가를 주었던 것이다. 이는 매우 과격적인 엘리트 양성 제도로 인재 양성에 대한 세종의 확고한 의지와 긴 안목을 읽을 수 있다.

간행시기의 차이 때문인지 기록 양상에 있어 ①의 기록이 ②에 비해 그 서술이 보다 신중하다. 서거정은 사가독서에 대해 서술하면서 1426년의 사실에 대해서는 신석조·권채·남수문 3인의 성명을 모두 명시하고 있으나, 1442년 진관사 사가독서에 대해서는 신숙주와 그 외 인물들이라고 에둘러 표현하여 사육신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sup>13)</sup> 그에 비해 ②의 기록에서는 6인의 貫鄉, 姓名, 字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①의 신중함을 통해서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6인 중 박팽년, 이개, 성삼문, 하위지의 시문이 전해질 수 없었던 예민한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다.

①의 기록을 볼 때, 사가독서자들이 공부했던 내용은 한 방면에 국한되

12) 집현전의 기능에 대해서는 최승희, 앞의 논문, 1966.의 3장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13) 1871년(고종 8)에 탈고된 李裕元의 『林下筆記』에 유사한 기사가 전하는데, 서거정의 『필원잡기』의 기술을 거의 그대로 옮겼다. 다만, 이 기록에서는 死六臣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李裕元, 『林下筆記』 卷24, 「文獻指掌編(讀書堂)」, “世宗朝始設集賢殿 聚文學之士 培養數十年 人材輩出 尙慮朝衙夕直 不專意講讀 選年少(有)才行者數人 許暇遊山 讀書 官給供具 肆意於經史百家天文地理醫藥卜筮 淹貫該博 無所不通 將爲大用之地 前有辛(文僖)碩祖 權(承旨)採 南(直殿)秀文 後日(有)申(文忠公)叔舟 朴(彭年)成三 閔(河緯地) 崔(恒) 朴(元亨) 徐(居正) 柳(誠源) 姜(希孟) 盧(思愼) 餘皆名士也”

지 않았고 경서와 역사책에서부터 천문서, 복서 등의 실용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금이 檢討官 權採에게 이르기를, (中略) “杜詩와 같은 것은 風月을 읊조리는 것이므로 儒者의 정식 학문은 아니나, 또한 대강 익히지 않을 수 없으니 그대들은 더욱 학문에 힘써서 杜甫의 시·韓愈와 柳宗元의 글 등을 모두 익혀 보는 것이 좋겠다.”<sup>14)</sup>

1430년(세종 12)에 세종은 이미 사가독서자들에게 경서와 역사서 외에 두보의 시, 한유·유종원의 글 등 문학 작품들을 폭넓게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12년 후 진관사에서 사가독서 하게 되는 6인이 각종 문학 작품들을 접해 읽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세종은 나이 22세에 이르도록 왕세자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규 왕세자 교육제도인 書筵을 거의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비교적 자유롭게 자기 주도적 공부를 할 수 있어서 書畫·花石·琴瑟 등 藝技에 능하게 되었으며<sup>15)</sup>, 『주역』 점을 명쾌하게 풀이<sup>16)</sup>하거나 醫書에 통달하여 풍부한 약물 지식<sup>17)</sup>을 갖추는 등 해박하였다. 따라서 사가독서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그 제도를 형식상 매우 유연하게 운영<sup>18)</sup>했으며, 공부해야 하는 책 역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4) 『世宗實錄』, 「世宗 12年 5月 18日 丁巳」, “上謂檢討官權採曰… 若杜詩則吟風詠月 非儒者正學 然亦不可不涉 若等尤加勉學 如杜詩 韓柳文等書 靡不熟看可也”

15) 배종대, 「세종의 호학(好學)」, 『고려법학』 52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p.11.

16) 『太宗實錄』 卷35, 「太宗 18年 1月 26日 丁丑」, “青城君 鄭擢以易占進於上 忠寧大君就解之甚明”

17) 『太宗實錄』 卷35, 「太宗 18年 2月 4日 乙酉」, “誠寧大君 卒… 忠寧大君率醫員元鶴 日夜常在側 精究方書 未嘗釋手 親執藥餌救療 兩殿感其至情”

18) 서범중, 「조선시대 사가독서제의 교육적 성격」, 『한국교육학연구』 9권 2호, 안암교육학회, 2003, p.23.

임금이 말하기를, (中略) “(지금) 독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하니, 左代言 金緒가 아뢰기를, “辛石堅과 南秀文입니다.”하였다. 임금이 權採에게 이르기를, “그대도 일찍이 독서하는 반열에 나아갔었으니, 읽은 것이 무슨 글인가?” 하니, 권채가 아뢰기를, “『中庸』과 『大學』입니다.” 하였다. (中略) 김자도 또한 아뢰기를, “집에 있으면 事物과 賓客을 應接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산속에 있는 한가하고 고요한 절만 못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sup>19)</sup>

1428년(세종 10) 경연에서 세종이 독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물었을 때, 그 대답으로 1426년(세종 8) 사가독서자로 채택되었던 신석견과 남수문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조 사가독서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1426년 당시 함께 사가독서자로 임명되었던 권채는 이때 경연에 참여하고 있어서 사가독서 기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sup>20)</sup> 또한 金緒(?~1428)의 ‘집에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건의에 의해 이후 사가독서 장소가 집이 아닌 ‘산속에 있는 한가하고 고요한 절’이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 의해 박팽년·이개·성삼문·하위지·신숙주·이석형 6인의 사가독서 장소가 삼각산 진관사로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다음 장에서는 6인이 남긴 문학 작품을 통해 이들간의 교유 상황을 구

19) 『世宗實錄』 卷39, 「世宗 10年 3月 28日 庚戌」, “上曰 ‘… 讀書者爲誰?’ 左代言金緒曰 ‘辛石堅 南秀文也’ 上謂權採曰 ‘爾亦曾詣讀書之列 所讀何書?’ 採曰 ‘讀中庸 大學’ … 緒亦曰 ‘在家則不得不應事接賓 莫如山寺之閑寂’ 上從之”

20) 이에 대해 서범준은 앞의 논문, p.13.에서 “선발을 하면서 기간을 정해 휴가를 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현직을 유지한 채 독서를 하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독서기간 중이라도 소속 관서에 불러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외임으로 나가거나 상중에 있어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서 그 기간을 달리하였다.”고 서술하였다.

21) 이후 서거정도 성종에게 진관사 사가독서의 사례를 예로 들어 사가독서 장소를 산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成宗實錄』 卷68, 「成宗 7年 6月 28日 己亥」, “御經筵 講訖 知事徐居正啓曰 今賜暇讀書文臣 當於空家聚會肄業 然在城內 閭閻 則交友往見者必多 且將數歸其家 如此則心不專一 臣在世宗朝 亦與申叔舟等受暇讀書于山寺 …”)   
 www.kci.go.kr

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시 작품을 중심으로 본 교유 양상

주지하다시피 삼각산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6인 가운데 박팽년·이개·성삼문·하위지 4인은 死六臣에 속하는 인물들로 39세~45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다. 따라서 관료로서의 직분수행에 盡力하느라 축적된 작품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성삼문, 하위지는 시문에 능하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들 모두 반역의 죄에 연루되어 滅門之禍를 당하였으니 그나마 작품들도 散逸·滅失되어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다.

성삼문은 문장은 호방하지만 시를 잘 짓지 못했다. 하위지는 對策과 疏章에 능했지만 시를 잘 몰랐다. (中略) 이개는 맑고 빼어나며 시 또한 정밀하고 뛰어났다. 동료들은 모두 박팽년을 ‘집대상’이라 추대하며 그의 경술, 문장, 필법이 모두 좋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죽임을 당해 작품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sup>22)</sup>

다행인 것은 1658년(효종 9) 집안 여종의 헌신으로 사육신 중에서 유일하게 혈통을 이을 수 있었던 박팽년의 7대손 朴崇古(1615~1671)가 흠어져 있던 사육신의 遺文을 모아 『六先生遺稿』를 간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박팽년의 시 28수와 문 42편, 성삼문의 시 102수와 문 16편, 이개의 시 23수와 문 2편, 하위지의 시 9수와 문 3편이 오늘날 전해질 수 있었다.<sup>23)</sup> 또한

22) 成倪, 『慵齋叢話』 卷1, “... 謹甫文瀾豪縱 而短於詩 仲章長於對策疏章 不知詩 ... 伯高清穎英發 詩亦精絕 然儕輩皆推朴仁叟爲集大成 謂其經術文章筆法俱善也 然皆被誅 其所著不顯於世 ...”

23) 『六先生遺稿』의 간행 및 구성에 대해서는 송제소, 『六先生遺稿』 해제, 1999. (한국고전종합DB)를 참고하였다.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6인 중 사육신과는 삶의 궤적을 달리하여 天壽를 누렸던 이석형, 신숙주는 현전하는 작품이 비교적 많은데 이석형은 『樗軒集』에 시 268제, 문 12편을 전하며, 신숙주는 『保閑齋集』에 시 584제, 문 60여 편이 실려 있다.

많지 않은 글을 근거로 하여 이들의 교유양상을 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적은 자료 속에서도 이들 6인 간 교유 정황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어 이를 정리하는 것 역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들의 교유 양상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독서 체험 및 창화시’에서는 이들의 문학작품 속에서 진관사와 장의사[장어사]에 체류했던 기록을 따라가면서 서로 간 수창한 양상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편찬 사업의 참여와 學杜 성향’을 통해서는 독서를 통해 뛰어난 기량을 갖추게 된 이들이 이후 국가의 각종 편찬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교유를 이어나갔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신숙주는 세종조의 어문정책 실무자로서 성삼문과 깊은 교유를 했는데<sup>24)</sup>, 신숙주와 성삼문 간 주고 받았던 두보의 시운을 사용한 차운시를 통해 이들의 學杜 양상을 들여다보았다. 마지막으로 僧 一庵과의 교유와 6인의 聯句詩에 대해 살펴 보았다.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6인의 교유 정황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는 聯句詩 네 수다. 『용재총화』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들은 모두 승려 일암이 사가독서 참여인 6인을 따라다니며 베껴놓은 것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암은 이들 6인의 교유 양상을 살피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암과 세종조 집현전 학사들과의 교유 정황은 여러 작품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이는 崇儒抑佛 정책을 폈던 조선초에도 승려와의 사적인 교제에 있어서는 매우 열린 태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4) 김은정, 「保閑齋 申叔舟의 교유와 한시」, 『韓國漢詩研究』 23집, 한국한시학회, 2015, p.5.

## 1. 독서 체험 및 창화시

사가독서는 학사들이 山寺 등에 함께 기거하면서 글을 읽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사가독서에 참여한 학사들은 일정 기간을 함께 생활하며 학문을 연구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학문적 토론과 교류를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학문적 공통성도 깊어졌을 것으로 보인다.<sup>25)</sup>

세종이 집현전 유신 고령 신숙주 등 몇 사람을 뽑아 진관사에서 사가독서하게 하고, 그 후에 익성군 홍응, 달성군 서거정, 명헌공 이파 등 몇 사람을 藏義寺에서 독서하게 했다.<sup>26)</sup>

앞서 언급한대로 세종조에는 진관사 사가독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가독서를 명한 기록이 없다. 李肯翊(1736~1806)의 『燃藜室記述』의 기록을 참고하면 “문종 신미년(1451년, 문종 1)에 洪應 등 6명에게 휴가를 주었다.”<sup>27)</sup>고 하였으니, 위에서 언급한 洪應(1428~1492)과 徐居正, 李坡(1434~1486) 등이 藏義寺에서 사가독서를 하게 된 것은 문종 때로 추정된다. 이후 성종조에도 장의사에서 사가독서 기록<sup>28)</sup>이 보여 장의사는 진관사와 함께 조선 사가독서의 중심 山寺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중 이석형의 『저헌집』을 참고하면 그는 진관사뿐 아니라 장어사[장의사]에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25) 강문식, 앞의 논문, 1998, p.92.

26) 成俔, 『慵齋叢話』 卷9, “… 世宗揀集賢殿儒臣 申高靈等數人 賜暇讀書于津寬寺 其後洪益城徐達城李明憲等數人 讀書于藏義寺 …”

27) 李肯翊, 『燃藜室記述』 別集 卷7, 「官職典故·讀書堂」, “文宗辛未 又遣洪應等六人 給暇讀書于藏義寺”

28) 金宗直, 『佔畢齋集』(『韓國文集叢刊』 12) 卷15, 「簡時叔」, p.321c, “… 丙申歲 館閣諸公建白 選文臣年少聰敏者 給暇讀書于藏義寺 蔡壽 權健 許琛 曹偉 楊熙止 俞好仁六人在選 …” (이와 유사한 기록이 李肯翊의 『燃藜室記述』(別集 卷7, 「官職典故·讀書堂」)에도 보인다.

이때 曹公과 尹公 두 분이 『주역』을 읽기 위해 藏魚寺에 돌아왔는데, 나 또한 『주례』를 읽으라는 명을 받고 이웃 방에 우거하였다.<sup>29)</sup>

藏魚寺는 藏義寺의 별칭으로 이 절 역시 삼각산에 있었다.<sup>30)</sup> 당시 이석형은 『주례』를 탐독하기 위해 장어사에 우거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의 또 다른 시, 「장어사에서 우거하면서 우연히 읊다」<sup>31)</sup>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석형이 이개의 운에 차운한 시에 “장어동에 티끌이라고는 없는데 그 가운데 한가롭게 세상 밖 사람 있네[藏魚洞裏絕纖塵 中有閑閑物外人]”<sup>32)</sup>라고 하였고, 서거정에게 「藏魚寺洞에서 성삼문[成謹甫]을 보내고, 날이 저물자 유연히 짓다」<sup>33)</sup>라는 시가 남아있어 이때 장어사에는 이석형 뿐 아니라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이 상당수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말한 曹公과 尹公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이들이 『주역』을 읽기 위해 장어사에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세종대에 사가독서를 명한 사례가 다만 2건이 아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들이 진관사와 장어사[장의사]를 오갔던 배경에는 이들과 깊이 교류했던 僧一庵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 장을 두어 좀 더 상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앞서 세종조 사가독서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사가독서 기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6인에게도 그러했다.

29) 李石亨, 『樗軒集』(『韓國文集叢刊』 9) 卷下, 「贈曹尹兩公(時兩公 以讀易歸藏魚寺 余亦受讀周禮之命 栖於隣房)」, p.422d.

30) 『新增東國輿地勝覽』 한성부 참조.

31) 李石亨, 『樗軒集』 卷下, 「寓藏魚寺偶吟」, p.419a.

32) 李石亨, 『樗軒集』 卷下, 「次清甫韻」, p.418d.

33) 徐居正, 『四佳詩集』(『韓國文集叢刊』 10) 卷4, 「藏魚寺洞 送成謹甫 日暮 悠然有作」, p.292d.

半歲天涯已倦遊	반 년 동안 하늘 끝서 지치도록 돌아다녀
歸心日夕故山秋	밤낮으로 돌아갈 맘 가을 맞은 고향 산이네
山中舊友青燈夜	그 산 중의 옛 친구들 한밤에 등불 켜고
閒話應憐海外舟	한담하며 바다 저쪽 신숙주를 가련타 하리 <sup>34)</sup>

신숙주가 山寺에 남아있는 5인에게 답하여 보낸 시다.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신숙주는 1443년(세종 25) 2월 21일<sup>35)</sup> 通信使 卞孝文(1396~?)의 書狀官으로 일본에 갔다가 그 해 10월 19일<sup>36)</sup>에 還朝하였으니, 그는 사가 독서를 명 받은 지 1년이 채 못 되어 바로 일본 통신사 일행으로 차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으로 보아 이 시는 신숙주가 일본에서 환조하는 길에 博多島에 잠시 머물며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반 년 동안 일본에서 公務에 지쳐 고향 생각 가득이라 이 때문에 여전히 삼각산 진관사에서 책을 읽고 있을 친구들이 한층 더 그리워지는 것이다. 일찍 떠나간 신숙주를 제외한 5인은 상당 기간 동안 진관사와 장의사에 머무르며 활발하게 강학하고 시를 수창했던 것으로 보인다.

## ①

挑燈兀坐耿無眠	등불 돋우고 오뚝 앉아 잠들지 않으니
窓外松風自颯然	창밖의 솔바람 저 혼자 시원쿠나
高論有時談世外	고상한 담론 때때로 세상 밖 얘기하고
新詩聊與詠燈前	새로운 시 그런대로 등불 앞서 함께 읊네
知心遇處眞爲友	내 마음 알아줄 때 진실로 벗 되는 것
忘事閑人卽是仙	세상 일 잊고 한가하니 이사람 곧 신선이라

34) 申叔舟, 『保閑齋集』(『韓國文集叢刊』 10) 卷4, 「在博多島 次韻寄仁叟 伯玉 仲章 謹甫 清甫山居」, p.029a.

35) 『世宗實錄』 卷99, 「世宗 25年 2月 21日 丁未」, “日本通信使僉知中樞院事卞孝文 副使上護軍尹仁甫辭”;; 「世宗 25年 5月 28日 壬午」의 기사에 이때의 서장관이 신숙주였음이 밝혀져 있다.

36) 『世宗實錄』 卷102, 「世宗 25年 10月 19日 庚子」, “日本通信使卞孝文來 引見于思政殿”

莫恨伊人今未到    이런 사람 지금 없다 한할 것 없으니  
二人交契斷金傳    우리 둘의 교제가 단금지교로 전해지리<sup>37)</sup>

②

山室虛明世事稀    산집이 텅 비고 밝아 세상일 드물어서  
祇將黃卷作心知    단지 고서와 마음 알아주는 벗 삼는다  
俗來俗去忘迎送    속인 왔다 갔다 맞고 보내기 다 잊고  
花謝花開懶喜悲    온갖 꽃이 피고 짐에 희비가 게으르네  
幽鳥傍簷興客詠    처마 곁의 그윽한 새 객의 시흥을 돌워주고  
清流映壁洗塵思    맑은 물 벽에 비쳐 세속 생각 씻어가네  
朝朝暮暮渾無事    아침저녁 날마다 아무 일이 없어서  
時與閑僧講是非    때로 한가한 스님과 시비를 강론하네<sup>38)</sup>

①의 시는 詩題에 시를 하위지에게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석형의 『저현집』에는 사가독서 기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시가 10여 수 전하는데 이 중 창화 대상이 詩題에 드러나 있는 것은 이개·하위지를 대상 삼은 경우가 대부분이다.<sup>39)</sup> ①과 ② 시는 모두 속세 소식 끊어진 한적한 산사에서 책을 읽으며 밤늦도록 高談峻論을 나누고 시를 짓는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사가독서 참여인들은 세종의 특별한 인정과 은혜를 입어 속세에서 떠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행운아들이었다. 그러나 그 고마움과 만족감의 이면에는 점점 현실 정치 참여에서 멀어질지 모른다는 조급함 역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37) 李石亨, 『樗軒集』 卷下, 「與仲章夜話」, p.419a.

38) 李石亨, 『樗軒集』 卷下, 「山中」, p.418d.

39) 이석형의 『樗軒集』 수록 시들은 연도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 각 시작품의 정확한 창작연대를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사가독서하면서 지은 시들은 주로 『樗軒集』 卷下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詩題를 통해 대상을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9수다. 이 중 하위지에게 4수, 이개에게 3수, 이개·성삼문에게 1수, 이개·성삼문·박팽년에게 1수가 있다.

(前略) 집현전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文翰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中略) 근자에 들으니, 집현전 관원들이 모두 이를 싫어하고, 臺諫과 政曹에의 진출을 희망하는 자가 자못 많다 한다. 나는 집현전을 극히 중한 선발로 알고 특별한 禮待를 가하여 대간과 다를 것이 없는데도, 일을 싫어하고 遷轉을 희망함이 오히려 이와 같다면, 하물며 庶官들이겠는가. 人臣으로서 그 직임을 봉행하는 뜻이 과연 이 같은 것인가. 그대들은 태만한 마음을 두지 말고 학술을 전업으로 하여, 종신토록 이에 종사할 것을 스스로 기약하라.<sup>40)</sup>

『실록』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세종대 집현전 근무자들은 장기간 집현전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마음이 있었다. 집현전은 세종의 썩크 탱크(Think Tank)였으므로 세종대에는 집현전 관원이 다른 관청으로 옮겨가는 것을 되도록이면 억제했기 때문이다.<sup>41)</sup> 따라서 집현전도 아닌, 속세 소식이 완전히 끊긴 山寺에 들어앉아 독서만을 하는 6인의 젊은이들 역시 그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았던 듯 보인다. 이석형을 제외 한 사육신 4인의 경우, 현전하는 작품이 없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석형의 『저헌집』에 전하는 작품만으로도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 ①

寂寞書齋裏	적막한 서재에서
更深夜不眠	밤 깊도록 잠 못 이루노라
案前燈影爛	책상 앞엔 등불 그림자 깊고
窓外雨聲傳	창밖엔 빗소리 들려온다
恍若胸襟亂	갑자기 마음 속 뒤숭숭하여

40) 『世宗實錄』 卷63, 「世宗 16年 3月 20日 丁酉」, “… 設集賢殿 專事文翰也 … 近聞 集賢殿官員 率皆厭之 希望臺諫政曹者頗多 予以集賢殿爲重選 而禮待異常 無異 臺諫 厭事求遷 尙且如此 而況庶官乎 人臣奉職之意 果如是乎 爾等毋有怠心 專業 學術 期以終身”

41) 이성무, 「제1장 세종대의 역사와 문화」, 『세종시대의 문화』, 한국정신문화원 엮음(태학사), 2001, p.39.

紛然世事牽    어지러이 세상일에 끌리누나  
 如何空咄咄    무엇하러 부질없이 혀를 차면서  
 揮筆強成篇    붓 휘둘러 억지로 시를 짓는가<sup>42)</sup>

②

上山謀計自相違    산에 올라 세운 계획 스스로들 어졌으니  
 藉藉行言是與非    입방아에 오른 말들 옳고 그름 분분하네  
 每擬麻蓬同庇蔭    늘상 함께 보호 받아 삼밭 쭉대 되었으나  
 還慙玉石異妍蚩    되려 곱고 추함 달라 옥석된 것 부끄럽네  
 磨針後日成功大    꾸준히 공부한 건 뒷날 큰 성공 위해선데  
 鑄硯今朝見效遲    노력해도 오늘날에 효과 보긴 늦겠구나  
 何事吾生逢盛際    무슨 일로 이내 삶은 성대한 때 만나서는  
 詞林學海苦奔馳    문장 숲과 학문 바다만 고생하며 달리나<sup>43)</sup>

①은 사가독서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석형의 시 중 詩題에 창작 연대가 기재되어 있는 유일한 시다. 임술년(1442년, 세종 24) 10월 8일에 지었다고 했으니 사가독서를 시작한 바로 그 해다. 사가독서 인이 되어 山寺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어지럽고 세상사에 관심이 가는 것을 끊어내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은 이개에게 준 ②의 시에도 마찬가지로 경련과 미련에서 이러한 마음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공부라는 것은 세상에 크게 쓰이기 위해서인데 해야 할 공부가 끝이 없으니 현실에 도움이 되는 날이 올는지 모르겠다는 염려를 내비치고 있다. 또한 지금의 시대가 태평성대라 자신 같은 인재가 정사에 뛰어들지 않고 시 짓기와 책 읽기만 하고 있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풍운의 뜻을 가지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싶었던 젊은이들에게는 세종이 준 사가독서의 특혜가 반갑지만은 않았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은 먼저 조정의 부름을 받고

42) 李石亨, 『樗軒集』 卷下, 「夜中有感 (壬戌十月初八日)」, p.422c.

43) 李石亨, 『樗軒集』 卷下, 「十一月十四日有感作 呈李清甫(澧)」, p.418b.

통신사 사행길에 오른 신숙주에게 쓴 시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前略)

雖然專對才難得	하지만 전대할 재주 구하기 어려웠는데
而難其人事非輕	적임자 찾기 힘든 건 그 일이 가볍지 않아서라
所以朝家重其任	이때문에 조정에선 그 책임 중히 여겨
卒然高選在先生	갑자기 특별 선발에 선생이 들게 되었구려

(中略)

歸歟歸歟歸莫緩	가게나 가게나 지체 말고 가게나
一葦孤帆萬里平	일엽편주 외로운 배 만리가 잔잔하네
海不揚波今已久	바다에 파도 일지 않은지 이미 오래거니
何憂巨浪與長鯨	큰 파도 큰 고래 근심할 것 뭐 있나
嗟余磨驢常踏迹	아 나는 맷돌 돌리는 노새 같아 제자리걸음이니
不是碌碌卽硜硜	변변찮을 뿐 아니라 융통성마저 없다오
正似閩中兒女耳	그야말로 규중의 아녀자 같을 뿐이니
四方之志竟何成	사방을 경영할 뜻 끝내 어찌 이루겠나
今日送君多憾慨	오늘 그대 전송함에 느끼움 많거니
交乎相別難爲情	서로 이별하니 마음 추스리기 어렵구나 <sup>44)</sup>

시 전체에서 먼저 조정의 부름을 받고 산사를 떠나가는 신숙주에 대한 부러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시 어디에서도 고된 사행길에 대한 걱정이나 산사에서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은 “가게나 가게나 지체 말고 가게나[歸歟歸歟歸莫緩]”라는 직접적인 표현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부름 받고 나가는 신숙주를 보고 있자니 산사에서 할 일 없이 책만 읽고 있는 자신의 신세가 ‘맷돌 돌리는 노새[磨驢]’ 같이 보잘 것 없어 자학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만일 이 시기 신숙주의 시가 있다면 이석형의 것과 비교하여 진관사를 떠난 자와 남아 있는 자의 심사가 더 극명하게 대비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에서

44) 李石亨, 『樗軒集』 卷下, 「贈送泛翁奉使日本」, p.416c.

도 언급했듯이 신숙주는 “전대할 재주 구하기 어려워[專對才難得] 갑자기 특별 선발에 들게 된[卒然高選在先生]” 것이었다. 곧, 신숙주의 일본행 차출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詩作의 여유가 없었던 하며 이로 인해 개인적 감회를 읊은 시 역시 남아있지 않다. 신숙주는 이때 일본에 다녀온 후 왕명에 따라 일본의 지세와 국정, 교빙내왕의 연혁, 사신관대예접의 절목을 기록하여 『海東諸國記』를 편찬하였고, 이후 여러 요직을 역임하였다. 이렇게 볼 때, 신숙주가 진관사 사가독서자 5인과 삶의 궤적을 달리 하게 된 것은 일본 사행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상을 통해 진관사와 장의사에서의 6인의 사가독서 양상을 밝혔고, 이어 그 내면의 심사를 엿보고자 하였다. 임금의 총애로 인해 허락받은 유급휴가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文才에 대한 세상의 인정이요, 자기 개발에 힘쓸 수 있는 好機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정치 그룹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불안하고 초조한 심사를 가지게 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숙주의 경우, 이때부터 이미 나머지 다섯 명과는 다른 길을 걸었는데, 이는 훗날 그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 것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편찬 사업의 참여와 學杜 성향

세종 시기는 조선의 왕조 교체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에 따라 경제도 안정되어 새로운 문화가 꽃피기 시작한 시기였다. 개국 이래 經學을 중시하고 詞章을 억제하던 정책이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세종은 다시 詩學을 장려하였다. 그와 같은 흐름을 대표하는 것이 1431년(세종 13) 밀양에서 간행된 『杜工部草堂詩箋』이었다. 이 서적의 간행은 杜詩의 내용성과 예술적 성취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杜詩에 대한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杜詩의

보급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纂注分類杜詩』(1444년), 『分類杜工部詩諺解』(1504년) 등 조선의 독자적인 두시주석서의 출현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sup>45)</sup>

특히 1444년 『찬주분류두시』의 편찬과 관련하여서는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의 직간접적인 기여를 추정해볼 수 있는데, 이보다 한 해 앞선 1443년 『실록』의 기록을 참고하며 그 흐름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中外에 杜詩에 대한 諸家の 註解를 구입하도록 명하였다. 이 때에 집현전으로 하여금 두시에 대한 여러 사람의 주석을 참고 교정하여 하나로 만들도록 하였으므로 구입하도록 한 것이었다.<sup>46)</sup>

동일한 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서술이 박팽년의 글에 보인다.

正統 8年(1443年) 여름 4월에 임금께서 두보 시의 註를 모으라고 명하셨다. 이때에 辛碩祖 이하 총 6명이 屬官이 되었는데, 안평대군이 실제로 총괄하였다.<sup>47)</sup>

1443년 임금의 명으로 당시 집현전에 속해 있던 학자들이 두보 시에 대한 諸家の 주석을 구하는 일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경호(1998)는 당시 문인 학자들이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문단을 형성하고 있었고, 안평대군이 엮은 『唐宋八家詩選』의 서문을 박팽년·이개·성삼문·최항 등이 썼다는 점을 들어 『찬주분류두시』 작업에 투입된 屬官-“신석조 이하 총 6명”- 안에 박팽년, 이개, 성삼문, 최항 등이 속했을

45) 蔡夢弼 集錄·이의강 역주, 『(세종조간행본) 杜工部草堂詩話』, 다운샘, 2003, pp. 235-236. 참조.

46) 『世宗實錄』卷100, 「世宗 25年 4月 21日 丙午」, “命購杜詩諸家註于中外 時 令集賢殿參校杜詩諸家註釋 會粹爲一故 求購之”

47) 朴彭年, 『朴先生遺稿』(『韓國文集叢刊』 9), 「三絕詩序」, p.464, “正統八年夏四月上 命會粹子美詩註 于時 鷲山辛公以下凡六人爲屬官 匪懈堂實摠裁焉”

가능성을 말한 바 있다.<sup>48)</sup> 물론 신석조 이하 6명에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6인이, 또는 그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다. 두시에 관심을 기울이고 배우고자 하던 경향이 이들 6명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辛碩祖가 집현전에 처음 들어간 시기(1426년)로부터 세종의 두시 주석서 편찬 명령이 있던 시기(1443년) 사이에 집현전에 새롭게 들어간 인물은 33명에 불과하다.<sup>49)</sup> 이들 중 『찬주분류두시』에 참여한 인물은 신석조 아래의 직위에 있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안평대군과 친밀하게 교유한 인물로 범위를 축소해야 하는데,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6인이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6인이 1442년 진관사 사가독서를 참여하면서 杜詩를 공부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찬주분류두시』 편찬 작업에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6인이 두보의 시를 읽었다면 두보의 詩韻을 가지고 차운시를 지어 서로 교유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특히 성삼문·신숙주에게 두보시의 운자를 사용하여 서로 주고받은 시가 남아있어 學杜 양상에 대한 증거가 되어준다. 두 사람 사이에 두보의 시를 차운하여 주고받은 시는 모두 9수로 이는 현전하는 성삼문 시의 거의 10%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니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또한 신숙주의 문집 『保閑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시들은 오언절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형의 첫 부분이 성삼문과 주고받은 작품으로 시작한다.<sup>50)</sup> 이를 통해 신숙주와 성삼문 간의 깊은 교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學杜 양상과 관련되어 있다.

48) 沈慶昊, 「조선조의 杜詩集 간행과 杜詩 受容」, 『杜詩와 杜詩諺解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편(태학사), 1998, p.24.

49) 集賢殿 初入時期와 學士의 姓名 등은 鄭杜熙, 앞의 논문, 1980, pp.99-100.의 <집현전 학사 일람표>를 참고하였다.

50) 김은정, 앞의 논문, p.9. 참조.

①

三韓西北是義州	삼한의 서북쪽 땅은 바로 의주인데
長江萬古城下流	긴 강이 만고토록 성 아래로 흐르누나
青春過此已云再	청춘에 이곳을 지나는 것 벌써 두 번인데
第三行色如在秋	다음 세 번째 걸음은 가을이 될 것 같다
君之此行應頻頻	그대 이 걸음이 응당 잦을 것이니
此行頻頻君莫愁	이 걸음 잦은 것을 그대는 근심 말라
一朝患豈君子患	하루아침 걱정이 어찌 군자의 걱정인가
終身憂是丈夫憂	종신의 근심이 바로 장부 근심이라
口談周孔手詩書	입은 주공 공자 말하며 손엔 시서 놓지 않고
行有肥馬寒輕裘	행차에는 살진 말 추위에는 가벼운 잣옷 있네

(後略)<sup>51)</sup>

②

吾子才名動神州	그대의 재주와 명성 중국 천지 흔들어서
華人已識非凡流	중화인도 벌써 보통 인물 아님 알고 있네
詩腸筆陣莫如敵	시상과 글씨는 대적할 이 아무도 없고
器宇雖老富春秋	인품은 노성하나 나이는 젊었어라
桑弧壯志自韶龔	사방 경영 장한 뜻 어릴 적부터 품었으니
胸中肯遣生離愁	가슴에 어찌 이별의 슬픔 있을 건가
客窓卷帙手不釋	객창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은 적 없으니
堯舜君臣常懷憂	요순 같은 군신 되려 항상 근심 품고 있네
青雲步武天路遠	청운의 발걸음 하늘 길 특 트였고
家業人道傳箕裘	사람 도리 전해오는 가업을 계승하네
探音究韻誰最先	음운을 탐구함이 누가 가장 앞섰던가
遠亦摘之深亦鉤	멀리까지 들춰내고 깊이 있게 찾아낸다

(後略)<sup>52)</sup>

①은 성삼문이 지은 시이고, ②는 성삼문 시에 대한 신숙주의 차운시인

51) 成三問, 『成謹甫集』(『韓國文集叢刊』 10) 卷1, 「用工部韻和泛翁」, p.182c.

52) 申叔舟, 『保閑齋集』(『韓國文集叢刊』 10) 卷11, 「次謹甫用工部韻見示」, p.089b.

데, 모두 두보의 시 「배시주에게 부치다[寄裴施州]」에서 운자를 가져왔다. 먼 길을 함께 가면서 서로를 평가하고 격려하고 있는 시로 성삼문의 시 1~2구를 통해서 당시 성삼문과 신숙주가 義州를 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3~6구를 통해서 이러한 행차가 처음이 아니며, 다음 행차 역시 미리 잡혀 있다고 하였으니 두 사람이 이 경로를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오갔음을 짐작하게 한다.

성삼문은 신숙주에게 “입으로는 주공 공자의 말을 하며 손에는 시서를 놓지 않는다[口談周孔手詩書]”고 하였으며, 신숙주는 이를 받아 성삼문에게 “객창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은 적 없다.[客窓卷帙手不釋]”고 하여 서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왕명 수행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숙주의 시 11구의 “음운을 탐구함이 뉘 가장 앞섰던가[探音究韻誰最先]”를 통해 지금 이들의 여정이 ‘음운을 탐구[探音究韻]’하는 임무와 관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1445년(세종 27) 『실록』의 기사를 참고할 만하다.

집현전 副修撰 申叔舟와 성균관 注簿 成三問과 行司勇 孫壽山을 요동에 보내서 韻書를 질문하여 오게 하였다.<sup>53)</sup>

1445년 중국의 한림학사 黃瓚은 죄를 얻어 요동에 오게 되는데, 이때 신숙주와 성삼문이 왕명에 의해 13차례 요동을 왕환했는데, 모두 운서와 관련한 질문을 한 듯 보인다. 그리고 그 여로에서 수많은 시를 짓고 중국 인과의 수창도 이루어졌다.<sup>54)</sup> 이것은 1448년 세종의 명으로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韻書 『東國正韻』의 편찬과 연관이 생각해볼 수 있다. 신숙주

53) 『世宗實錄』 卷107, 「世宗 27年 1月 7日 辛巳, “遣集賢殿副修撰申叔舟 成均注簿 成三問 行司勇孫壽山于遼東 質問韻書”

54) 이종목, 「제5장 세종대 집현전 문인의 문학활동」, 『세종시대의 문화』, 한국정신문화원 엮음(태학사), 2001, p.260.

의 『동국정운』 서문을 참조하면 그 편찬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은 신숙주 · 최항 · 성삼문 · 박팽년 · 이개 · 강희안 · 이현로 · 조변안 · 김증의 9인인데, 이들의 분담업무 상 主務를 신숙주와 성삼문이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sup>55)</sup>

老矣吾衰業不精	늙었구나 노쇠하여 일이 정밀하지 못하니
聞奇羨殺故人行	기이한 것 듣는다고 친구들 가는 길이 부럽구나
九霄鸞鶴雙鸞影	높은 하늘 난새 고니 쌍쌍으로 날아오르고
一曲驪駒萬里情	여구곡 한 곡 연주 만리 떠나는 정일세
舉白唯應懷李白	건배할 땐 응당 이백이 그리웁고
眼靑終共見藍靑	반가운 눈 종당에는 서로 나온 모습 본다
道東想有華人嘆	동쪽 길서 중국 사람 찬탄 받을 생각하니
不是尋常海外生	바다 건너가는 사람 보통 일 아니구나 <sup>56)</sup>

위의 시는 최항이 성삼문, 신숙주 둘을 전송하며 쓴 시다. 신숙주의 화답시 시제로 보아 이때 송별시를 전한 이는 최항 외에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때 시를 지은 여러 사람들은 대부분 『동국정운』 편찬 작업에 참여하는 집현전 학사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에 대한 화답시 역시 신숙주와 성삼문 모두 남겼는데, 혀와 입술을 움직이고 이를 부딪혀 내는 소리의 음가가 정확하지 못하여 중국에 물어보러 가는 직분을 받았다.“[齒舌牙唇尙未精 中原虛作問奇行”]<sup>57)</sup>고 밝히면서, 그 길을 신숙주와 성삼문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同作遼陽萬里行”]<sup>58)</sup>을 이야기하였다.

55)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국정운」, “『동국정운』의 편찬에 참여한 사람은 신숙주·최항·成三問·박팽년·李塏·姜希顔·李賢老·曹變安·金曾 등의 9인인데, 이들의 분담업무는 監掌은 東宮, 그 보좌로는 晉陽大君과 安平大君, 主務는 신숙주와 성삼문, 우리나라 한자음의 사정은 최항과 박팽년, 중국음에 대한 자문은 조변안과 김증, 교정과 정리는 강희안이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56) 崔恒, 『太虛亭詩集』(『韓國文集叢刊』 9) 卷1, 「送高靈申泛翁 夏山成謹甫之遼陽」, p.181b, 二首 中 其一.

57) 申叔舟, 『保閑齋集』 卷9, 「次京洛諸公送行韻 示謹甫」, p.074a.

①

客裏還多事	나그네라 되려 일이 많아서
頭慵一月梳	머리 빗질 한 달이나 게을렀구나
山光侵戶牖	산 빛은 창 안으로 침노해 들고
草色上庭除	풀빛도 뜰가에서 온통 푸르다
慣把澆愁酒	시름의 술 따르기 버릇되었고
憂緘寄遠書	멀리 편지 부치기는 걱정거리네
他鄉江北是	타향은 강의 북쪽 바로 여긴데
明日更何如	내일은 다시 또 어떠할런지 <sup>59)</sup>

②

花壓水爲鏡	꽃잎 뜬 강물은 거울이 되고
草纖風作梳	풀은 가늘어 바람이 빗질한다.
清興因詩得	맑은 흥은 시를 지어 얻어 보는데
幽愁用酒除	깊은 수심 술 마셔서 없애본다네
三春殘客路	석달 봄은 나그네 길에서 다 가고
一月隔家書	한 달 삼십일 집의 편지가 없다.
句句先生傑	글귀마다 선생 시는 걸작품인데
吟吟愧不如	읊어 봐도 닮지 못함 부끄럽구나 <sup>60)</sup>

①은 신숙주가 지은 시이고, ②는 신숙주 시에 대한 성삼문의 차운시인데, 모두 두보의 시 「맑게 갠 가을날[秋晴]」에서 운자를 가져왔다. 대장부로서 큰 뜻을 품고 왕명을 수행하는 길에 올랐으나 13차례나 지속되는 여정은 客愁를 불러일으키고 심신을 지치게 하기에 충분했다. 봄을 맞아 산과 뜰에 봄빛은 만연한데 맑은 직분은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중국인들과의 수창은 버겁기만 하다. 서로 술을 나누며 타향살이를 위로하고 있으며, 특히 성삼문은 尾聯을 통해 詩作에 능하지

58) 成三問, 『成謹甫集』 卷1, 「向遼東 用京洛諸公送行韻和泛翁」, p.181d.

59) 申叔舟, 『保閑齋集』 卷8, 「次工部秋晴韻 示謹甫」, p.068b.

60) 成三問, 『成謹甫集』 卷1, 「次工部秋晴韻」, p.182a.

못한 자신을 겸양하며 신숙주의 詩才와 수고를 치켜세우고 있다.

세종의 음운학에 대한 관심은 『동국정운』 편찬 사업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국정운』이 1448년 완성을 보았으나, 1450년 조선에 예겸과 사마순 등의 중국 사신이 방문하자 세종은 다시 운서를 물어볼 것을 명한다.<sup>61)</sup> 이 자리에서 성삼문과 신숙주는 중국의 운서인 『洪武正韻』을 가지고 한참 동안 강론하였는데<sup>62)</sup> 이를 계기로 중국 사신과 이들 둘의 관계가 돈독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께서 신숙주와 성삼문에게 가서 함께 유람하면서 중국의 음운을 질문하라고 명하셨다. 예겸이 두 선비를 사랑해 형제의 의를 맺고 서로 시를 쉬지 않고 주고받았으며, 사신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했다.<sup>63)</sup>

중국 사신과의 자리에는 신숙주와 성삼문 외에도 집현전의 많은 학사들이 참여했으며,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6인 모두 배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겸과 사마순을 전송하며 지은 시가 6인 모두의 문집에 각각 전한다.

### 3. 僧 一庵과의 교유와 聯句詩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6인 중 성삼문, 하위지, 이석형의 개인 문집에는 사가독서를 하면서 지었다고 소개된 聯句詩들이 있어 눈에 띈다. 성삼문의 『成謹甫集』에는 「賜暇酬唱」이라는 제목 하에 실린 「三角山聯句」·

61) 『世宗實錄』 卷127, 「世宗 32年 閏1月 3日 戊申, “命直集賢殿成三問 應教申叔舟 奉禮郎孫壽山 問韻書于使臣 …”

62) 『世宗實錄』 卷127, 「世宗 32年 閏1月 3日 戊申, “… 三問 叔舟將洪武韻講論良久 …”

63) 成倪, 『慵齋叢話』 卷1, “… 世宗命申泛翁成謹甫 往與之遊 仍質漢韻 侍講愛二士 約爲兄弟 相與酬唱不輟 竣事還也 捫淚而別 …”

「高山放石聯句」 두 수가 있으며, 별도의 제목으로 된 「聞笛聯句」도 한 수 전한다. 또한 하위지와 이석형의 문집 모두에 「紙燈聯句」가 실려 있다. 이들 네 수는 성현의 『용재총화』에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때 지은 작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正統 壬戌年(1442)에 내가 평양 박팽년(仁叟), 고령 신숙주(泛翁), 한산 이개(淸甫), 적촌 하위지(仲章), 연안 이석형(伯玉)과 함께 명을 받고 삼각산 진관사에서 글을 읽었는데, 학업을 연마하던 여가에 서로 수창하였다.<sup>64)</sup>

네 수의 聯句詩는 진관사 사가독서에 참여한 6인의 집현전 학사들이 학업을 연마하고 남은 시간에 시를 지어 詩才를 겨룬 기록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성삼문, 하위지, 이석형의 개인문집과 『용재총화』의 작품 간에는 그 작품의 글자와 작자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韻目的 정확도를 판단할 때 개인문집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는 개인문집에 실려 있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聯句詩는 여러 명의 작가가 구를 나누어 지어 한 편의 시를 함께 완성하는 것이다. 연구시는 漢代 柏梁體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지는데 唐代에 이르러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韓愈가 다양한 형식을 시도하면서 연구시가 융성하게 되어 우리나라 문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sup>65)</sup> 한유의 연구시는 이전 시기에 비해 편폭이 늘어났으며, 연구시 창작 방식 또한 좀 더 엄격하게 발전되었는데,<sup>66)</sup> 성률과 대우를 중심으로 서로의 詩才를 겨루는 묘미를 극대화하여 그 유희적 성격을 강조하였다.<sup>67)</sup> 동시에 연

64) 成三問, 『成謹甫集』 卷1, 「賜暇酬唱」, p.180a, “正統壬戌 余與平陽朴彭年仁叟 高靈申叔舟泛翁 韓山李磴淸甫 赤村河緯地仲章 延安李石亨伯玉 受命讀書于三角山津寬寺 做業之暇 相與酬唱”

65) 오보라, 「紅泉社의 결성과 시세계: 聯句詩를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66집, 동양고전학회, 2017, p.52. 참조.

66) 연구시 창작방식을 한 사람이 두 구씩 돌아가며 짓던 방식에서 앞선 사람은 出句만을 제시하고 다음 사람이 이에 대한 對句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다음 구의 出句를 제시하는 이른바 A-b-B-a의 형식으로 발전시켰다.

구시 창작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개인별 능력차가 있더라도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치 또한 마련하였는데 한 편의 연구시를 창작할 때 반드시 순번에 따르지는 않아도 되게 하여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詩作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sup>68)</sup> 삼각산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6인의 연구시는 네 편 모두 한 사람이 두 구씩을 짓고 다음으로 넘기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 순번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으며<sup>69)</sup>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구를 짓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高山放石聯句」에서 신숙주는 6구를 연달아 지으면서 시를 마무리하였고, 「紙燈聯句」에서는 신숙주가 두 차례, 이석형이 한 차례 4구를 연달아 지은 경우가 보이며, 「三角山聯句」에서는 이개가 4구를 연달아 지어 시를 마무리 지었으니 이것은 세 사람의 특출한 詩才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sup>70)</sup>

다음 시는 삼각산을 읊은 연구시로 박팽년·신숙주·성삼문·이개 4인이 참여하였다. 이 시는 전체 64운 128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해지는 네 수의 연구시 중에서는 가장 장편이다. 128구 중에서 박팽년이 30구, 신숙주가 32구, 성삼문이 32구, 이개가 24구씩 참여하였는데 박팽년이 앞서 신숙주가 사용했던 ‘斧’字를 한 번 더 중복해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67) 崔哲元, 「聯句 창작을 통해 본 宋代 문인의 문학적 교류」, 『中國語文論譯叢刊』 41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17, pp.5-6. 참조.

68) 박용만, 「江華學派의 聯句詩에 관한 고찰」, 『韓國漢詩研究』 12집, 한국한시학회, 2004, p.416. 참조.

69) 이에 대해 崔哲元은 위의 논문, pp.9-10.에서 “일반적으로 聯句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구를 짓고 처음 구를 제시한 이가 시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구 수나 순서에 상관없이 聯句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바, 이는 聯句詩가 지닌 즉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70) 『용재총화』 번역본에는 삼각산 진관사 연구시를 소개하면서 몇 구절에 “(원문에 작자가 누락됨)”(홍순석, 『용재총화』,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4, pp.193-224.) 또는 “[작자 누락]”(김남이·전지원 외 옮김, 앞의 책, pp.200-222.)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한 사람이 두 구씩만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에 기인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모두 虞韻의 仄字韻을 각기 다르게 사용하였다. 이 시는 박팽년이 128구의 첫 구를 여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후 신숙주·성삼문·이개의 순서를 비교적 잘 지키며 시가 완성되었다. 특히 박팽년을 기점으로 시의 흐름에 변화를 적절히 주면서 마치 5언 율시 8수를 연결한 것 같은 자연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위의 순서를 따르다가 중간에 박팽년이 한 번 쉬어가면서 한 연이 빠지자 제일 마지막에 이개가 4구를 연달아 지으면서 그 형식을 맞추고 있는 점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아래에서 시의 일부를 인용한다.

(前略)

西臨津寬寺	서쪽으론 진관사에 가깝게 섰고
南壓漢江滸	남쪽으론 한강 물을 누르고 있네 (박팽년)
小憐跂而及	발돋움해 미치는 것 조금 예쁘나
大厭昂不俯	우러러서 굽힐 수 없음 대단히 싫다 (신숙주)
上摩明星燄	위론 반짝이는 밝은 별에 닿을 듯
下瞰周原膺	아래 풍경한 평야 볼만하구나 (성삼문)
禪社茶何冷	사찰 차는 어찌 이리도 찬가
村墟酒須酷	촌가 술은 사다가 마실만하네 (이개)
窮經尋山室	경문을 궁구하려 산의 절 찾고
頤神受天祐	정신 기르기는 하늘 도움 받는구나 (박팽년)
朝夕對蒼翠	아침저녁 푸른 산을 마주보면서
坐臥尋訓詁	앉으나 누우나 옛 서적 보도다 (신숙주)
賦詠雖酷好	시 짓고 읊는 것 몹시 좋으나
學術卽麤粗	학문 재예 거칠고 어설피르다네 (성삼문)
願乞山英靈	산의 영령한 신께 비노니
聊益我肺腑	그런대로 나의 폐부 살찌게 하여
用以期遠大	힘써서 원대하기 기약하나니
致身可相輔	몸을 바쳐 나라 보필 할 수 있기를 (이개) <sup>71)72)</sup>

71) 성현의 『용재총화』에서는 “用以期遠大 致身可相輔”의 두 구는 신숙주가 지은 것으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시가 지어진 순서를 미루어 보아 이개가 4구를 모두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72) 成三問, 『成暇圃集』 卷1, 「賜暇酬唱·三角山聯句」, p.180a.

인용한 시를 살펴보면 박팽년이 삼각산의 지리적 위치를 말하자, 신숙주가 그 전체적인 모습을 읊고, 성삼문이 그곳에서 바라보이는 경치를 말하니 이개가 人情에 대해 받고 있다. 다시 박팽년이 삼각산을 찾은 목적을 말하자 신숙주가 삼각산에서의 일상을 읊고 성삼문이 사가독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개별 능력을 검양하자 이개가 포부를 밝히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네 수의 연구시를 살펴보면 그 창작에 6인이 모두 참여한 경우는 없었고, 각 시마다 4~5명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박팽년과 신숙주는 네 수의 시 창작에 모두 참여하고 있어 이를 통해 두 사람의 作詩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做得水輪樣	얼음같이 밝은 달을 본떠 만들어
藏爲一室光	온 방 안의 빛을 모아놓았네 (하위지)
上體如天轉	위의 모양 하늘처럼 둥글게 생겼고
下形象地方	아래 형상 땅처럼 네모나 있네 (박팽년)
成質資輕楮	재질은 가벼운 닥나무이고
揚輝避太陽	빛을 드날릴 쯤 태양 피하네 (이석형)
卵進頰蚘穴	알이 붉은 규룡 구멍에서 솟은 듯하고
寒凝素練霜	차기는 흰 명주에 서리 영킨 듯 (신숙주) <sup>73)</sup>
(後略)	

진관사의 종이등(紙燈)을 읊은 연구시로 하위지·박팽년·이석형·신숙주 4인이 참여하였으며, 27운 54구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지가 12구, 박팽년이 14구, 이석형이 12구, 신숙주가 16구씩 참여하였는데 하위지가 한 차례, 이석형이 두 차례 韻目을 벗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陽韻의 平聲韻을 각기 다르게 사용하였다. 인용시에서는 종이등의 외형과 소재, 기능에 대해 네 사람의 글이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처럼 잘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는 「三角山聯句」에 비해서는 그 순번의 변화가 많고 시

73) 河緯地, 『丹溪遺稿』(『韓國文集叢刊』 8), 「紙燈聯句」, p.540a.

상의 전환이 첫 구를 지었던 하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하위지는 對策과 疏章에는 뛰어났지만 시를 잘 몰랐다.”<sup>74)</sup>는 성현의 평가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위지는 네 수의 연구시 중 이 시 한 편에만 참여하고 있다. 聯句詩 창작은 기존에 제시된 구절에 성률과 대우뿐만 아니라 의미적 맥락까지 통일 시켜야 하는 집단 창작 과정<sup>75)</sup>으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문인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어우러져 풍격을 구현해 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sup>76)</sup>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미처 인용하지 못하는 시 「高山放石聯句」와 「聞笛聯句」 두 수는 삼각산 높은 곳에서 돌을 굴리며 함께 짓고, 밤에 피리 소리를 함께 들으며 지은 것이다. 「高山放石聯句」는 25운 50구로 이루어져 있고, 성삼문(12구)·이개(12구)·신숙주(16구)·박팽년(2구)·이석형(8구) 5인이 참여하였다. 이개가 2회, 이석형이 1회 韻目을 벗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陌韻의 仄韻을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聞笛聯句」는 26운 52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역시 성삼문(12구)·이개(10구)·신숙주(10구)·박팽년(10구)·이석형(10구) 5인이 참여하였다. 성삼문이 2회, 박팽년이 2회 韻目을 벗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阮韻의 仄韻을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 두 시는 돌을 굴리는 소리와 그 굴러 떨어지는 모양, 피리의 구슬픈 소리를 직접 보고 듣는 듯이 잘 그려내고 있는데 여러 명이 함께 창작하면서도 그 시정각적인 묘사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으니 秀作이라 할만하다.

잡체시의 한 종류인 연구시는 그 유희성과 집단 창작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그 문학적 가치에 대해 깊이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창작에 참여한 문인들의 생활상과 문학적 교유를 엿보는 데에는 매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며<sup>77)</sup> 이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

74) 주 22) 참조.

75) 崔哲元, 앞의 논문, p.15.

76) 崔哲元, 위의 논문, pp.18-19.

하게 살펴보았다.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들의 연구시에서는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묘사, 산사에서 일상적 한가로움, 공부에 매진하겠다는 다짐, 관료로서의 포부 등이 빈번하게 드러나는데 모든 편에 나라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쓰겠다는 다짐을 내비치고 있어 이들의 관료문인으로서의 기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시들은 승려 일암이 이들을 항상 따라다니며 베껴서 전한 것이다.<sup>78)</sup>

성현의 『용재총화』에서는 삼각산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의 연구시 네 수를 소개하면서 이 시편이 전해지게 된 계기가 승려 일암 덕분임을 밝혀 두고 있다. 『육선생유고』 중 하위지의 시문을 모은 『하선생유고』에서는 「紙燈聯句」를 소개하면서 “『津寬要覽』이라는 책 한 권이 弘文館에 있었는데 병자년(1456년, 세조 2)의 난리에 분실되었다.”<sup>79)</sup>고 언급한 바 있으니 사가독서 참여인 6인이 수창한 시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던 일이 있으며, 이는 단종 복위 운동의 실패 후 불태워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승려 일암이 따로 베껴놓았던 시 작품들이 없었다면 이들의 연구시는 오늘날에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一庵은 學專上人の 호인데 사람됨이 순수하고 근실해 다른 뜻이 없고 겉과 속이 한결같았다. 비록 시를 지을 줄은 알지만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경구는 없고 불경을 알지만 근본까지 깊이 탐구하지는 않았다. (中略) 일암이 사대부들에게 청해 받은 시권이 책상과 상자에 가득하니 한 시대의 정묘한 시들이 모두 거기에 모여 있었다.<sup>80)</sup>

77) 崔哲元, 앞의 논문, p.3. 참조.

78) 成倪, 『慵齋叢話』 卷4, “… 有釋一庵恒隨之 得傳寫焉”

79) 河緯地, 『六先生遺稿·河先生遺稿』, 「紙燈聯句」.

80) 成倪, 『慵齋叢話』 卷7, “學專上人號一庵 其爲人純謹無他 表裡如一 雖知作詩 而所占無警句 雖知內典 而不深究根本 … 一庵求詩於縉紳間 所藏詩卷 連床盈篋 而一時精抄之詩 皆萃於此矣”

세종조 승려 일암과 집현전 학사들의 교유 정황은 여러 시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신숙주가 그를 가장 좋아하고 아꼈다고 하며<sup>81)</sup> 신숙주의 『보한재집』에만 그와 교유한 시가 30여 수 넘게 전한다.<sup>82)</sup> 이외에 최항, 서거정, 李承召(1422~1484), 姜希孟(1424~1483)의 교유시도 여러 편 전한다.

上人學佛者	스님은 부처를 배운 사람이어서
揭一名其庵	한일(一) 자로 암자 이름 내걸었네
吾徒學孔子	우리들은 공자를 배운 사람인데도
還慙德二三	덕이 둘 셋 나누어져 부끄럽도다 <sup>83)</sup>

성삼문이 일암에게 준 시다. 이 시기 시승 일암은 진관사나 장의사[장어사] 등을 오가며 집현전 신진 문사들과 자주 수창하였는데<sup>84)</sup> 이에 따라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6인이 장의사[장어사]에 유숙할 때에도 일암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세종조 집현전 학자들과 詩僧 간의 이처럼 활발한 교유는 조선조가 유교를 통치이데올로기로 삼고 ‘崇儒抑佛’ 정책을 내세웠지만 이는 표피적이었을 뿐 당시의 많은 관료와 유학자들이 사실은 ‘外儒內佛’의 정신 상황 속에 있었음<sup>85)</sup>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 다만 이는 본고의 논점과는 별개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므로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81) 成倪, 『慵齋叢話』 卷7, “至如申高靈李延城朴平陽成謹甫柳太初姜晉山徐達城洪益城李陽城成夏山昆弟任西河李平仲金福昌 皆其至交 而高靈尤愛護之”

82) 승려 일암과 신숙주의 교유 양상에 대해서는 김은정, 앞의 논문, pp.24-31에 상세하다.

83) 成三問, 『成謹甫集』 卷1, 「題一庵」, p.190a.

84) 이종목, 앞의 책, 2001, p.277.

85) 박병련, 「世宗朝의 政治엘리트 양성과 人事運用의 特性」, 『한국동양정치사상사 연구』 6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7, p.32. (이외에도 세종이 조선의 지향이념인 유교국가 건설과 별개로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불교적이었음을 밝힌 선행연구 성과는 매우 많다.)

癸未年(1463) 5월 15일 이석형과 승 일암이 불러 진관동을 유람하면서 옛 놀던 자취를 찾았다. 이어 洪逸童(日休)과 金浩生 등을 불러 진관사로 들어갔다. 절은 모두 새롭게 단장했고, 옛날의 놀던 자취는 모두 변했으나 단지 문 앞의 고목만 예전 그대로였다.<sup>86)</sup>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7년이 지난 어느 날, 신숙주는 이석형, 승려 일암과 함께 진관사를 찾는다. 함께 시를 짓던 6인의 젊은이 중 4인은 이미 없고 승려와 두 사람만 당시의 교류를 기억하고 있다. 그간의 세월이 말해주듯 예전 놀던 자취는 모두 사라졌는데 고목 한 그루만 그대로 남아 무상감을 더해준다.

我昔棲山讀書	내가 전에 산에 머물며 독서했는데
俄然二十年來	순식간에 20년의 세월 지났네.
僧移寺新非舊	그때 스님 떠나갔고 사찰도 옛 모습 아닌데
唯有古木風回	고목 한 그루 그대로 바람을 불어주네 <sup>87)</sup>

시를 통해 신숙주는 1442년 처음 사가독서의 명을 받고 진관사에 들어온 때로부터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말하고 있다. 그때 삼각산에 머물렀던 일암 스님도 이제 이곳의 주지가 아니며 사찰 경내의 모습도 새로 단장하여 낯설기만 하다. 이곳에서 신숙주는 20년 전 6인의 젊은이가 함께 연구시를 지으며 밤을 지새우던 기억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당시의 진관사 사가독서를 기억하는 사람 3인이 함께 옛 공간을 찾았다는 기록에서 이들 간의 교류가 만년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86) 申叔舟, 『保閑齋集』 卷6, 「次洪日休游津寬洞後廣金浩生詩卷詩韻(癸未五月十五日 李伯玉與一菴專師 請游津寬洞 以探舊遊 乃招洪日休 金浩生等入津寬寺 寺皆新之舊遊盡變 但有門前古木如舊耳 …)」, p.047d.

87) 주 86) 참조.

#### IV. 나오며

본 논문은 세종이 설치했던 집현전의 학사들 중에서 1442년 세종의 명으로 삼각산 진관사 사가독서에 참여했던 朴彭年(1417~1456)·李塏(1417~1456)·成三問(1418~1456)·河緯地(1412~1456)·申叔舟(1417~1475)·李石亨(1415~1477) 6인의 교유 양상을 살피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세종의 정치철학과 이념이 가장 잘 투영될 수 있었던 시기로 범위를 한정할 것이다.

丁卯年(1447년, 세종 29) 重試에 대책을 짓고 표전도 지었는데 (中略) 중시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당대의 거벽들이었다. 성삼문이 수석이고, 이조판서 김담이 2등, 이개가 3등, 고령군 신숙주가 4등, 영성군 최항이 5등, 박팽년이 6등, 이석형이 7등이었다. (後略)<sup>88)</sup>

위 인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들 6인은 모두 당대의 거벽들로 세종대에 처음 시행되었던 賜暇讀書制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교유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이 세종조 집현전 학사의 전반적인 교유양상을 살피는 데 있어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삼각산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6인 가운데 박팽년·이개·성삼문·하위지 4인은 死六臣에 속하는 인물들로 전해지는 작품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들의 교유 상황을 살피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부득이 신숙주, 이석형의 문집에 전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살폈으며 뒷날 유고를 모아 발간된 『六先生遺稿』 및 『實錄』의 기록, 각종 필기잡록류의 서술들을 두루 참조하였다.

이들의 교유양상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독서

88) 成倪, 『慵齋叢話』 卷10, “丁卯年重試 製對策又製表箋 … 重試獲與者 一時巨擘 成謹甫居首 金吏判居二 李伯高居三 申高靈居四 崔寧城居五 朴仁叟居六 李延城居七 …”

체험 및 창화사에서는 이들의 문학작품 속에서 진관사와 장의사(장어사)에 체류했던 기록을 따라가면서 서로 간 수창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들의 시에서는 임금의 총애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동시에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조급한 심사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편찬 사업의 참여와 學杜 성향’을 통해서는 사가독서를 통해 뛰어난 기량을 갖추게 된 이들이 이후 국가의 각종 편찬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교류를 이어나갔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신숙주와 성삼문 간 주고 받았던 두보의 시운을 사용한 차운시를 통해 이들의 學杜 양상을 들여다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전하는 네 편의 聯句詩와 승 일암과의 교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6인의 교류 정황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를 통해 이들의 詩才와 교류 정황을 살피고 이들의 연구시에 관료문인으로서의 기상이 담겨 있음을 드러내었다. 또한 연구시가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시승 일암의 역할이 컸음을 밝히면서 일암의 세종조 집현전 신진 학사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많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들의 교류양상을 논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다. 다만 적은 자료 속에서도 이들 6인 간 교류 정황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어 이를 정리하는 것 역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였다. 다만 편폭의 제한과 능력의 부족으로 공적 사검과 관련해서 중국 사신과의 수창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고, 사적 교류와 관련해서는 진관사 사가독서 6인과 安平大君과의 詩會 양상, 조선초 집현전 학사들과 승 일암과의 구체적인 교류상황 등을 미처 다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추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진관사 사가독서 참여인 6인의 교류양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參考 文獻〉

조선왕조실록 DB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金宗直, 『佔畢齋集』
- 朴彭年, 『朴先生遺稿』
- 徐居正, 『筆苑雜記』
- 成三問, 『成謹甫集』
- 成侃, 『慵齋叢話』
- 申叔舟, 『保閑齋集』
- 李肯翊, 『燃藜室記述』
- 李石亨, 『樗軒集』
- 李裕元, 『林下筆記』
- 崔恒, 『太虛亭詩集』
- 河緯地, 『丹溪遺稿』
- 『六先生遺稿』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DB (<http://encykorea.aks.ac.kr>)

강문식, 「集賢殿 출신 官人の 學問觀과 政治觀」, 『韓國史論』 39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8.

김남이, 「집현전 학사의 문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김은정, 「保閑齋 申叔舟의 교유와 한시」, 『韓國漢詩研究』 23집, 한국한시학회, 2015.

박병련, 「世宗朝의 政治엘리트 양성과 人事運用의 特性」,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6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7.

박용만, 「江華學派의 聯句詩에 관한 고찰」, 『韓國漢詩研究』 12집, 한국한시학회, 2004.

배종대, 「세종의 호학(好學)」, 『고려법학』 52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서범중, 「조선시대 사가독서제의 교육적 성격」, 『한국교육학연구』 9권 2호, 안암교육학회, 2003.

- 오보라, 「紅泉社의 결성과 시세계: 聯句詩를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66집, 동양고전학회, 2017.
- 이종묵,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 문관들에게 휴가를 주어 책을 읽게 하다」, 『인문정 책포럼』 8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 정두희, 「集賢殿 學士 研究」, 『전북사학』 4집, 전북사학회, 1980.
- 崔哲元, 「聯句 창작을 통해 본 宋代 문인의 문학적 교유」, 『中國語文論譯叢刊』 41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17.
- 최승희, 「集賢殿研究: 置廢始末과 機能分析(上)·(下)」, 『역사학보』 32집·33집, 역사학회, 1966·1967.
- 
- 김남이, 『집현전 학사의 삶과 문학 세계』, 태학사, 2004.
- 서거정 저, 박홍갑 역, 『필원잡기』, 지만지, 2008.
- 성현 저, 김남이·전지원 외 옮김, 『용재총화』, 휴머니스트, 2015.
- 성현 저, 홍순석 역, 『용재총화』,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4
- 蔡夢弼 集錄·이의강 역주, 『(세종조간행본) 杜工部草堂詩話』, 다운샘, 200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엮음, 『세종시대의 문화』, 태학사, 200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편, 『杜詩와 杜詩諺解 研究』, 태학사, 1998.

## Abstract

*A study on the Companionship Among Jip-hyun-jeon(集賢殿) Scholars During the Sejong(世宗) Era*

*- Focusing on the Participants of Jinkwan(津寬) Temple's Saga-dok-seo(賜暇讀書) -*

Son Yoo Kyung\*

The 15th century was the era during which the Chosen[朝鮮] dynasty developed its cultural capacity through creating Hangul, compiling various books and organizing court music. At the center of these diverse achievements lied King Sejong[世宗] (1397-1450) and Jip-hyun-jeon[集賢殿], the royal academic institute, by whom the super structure of early Chosen such as politics, systems and culture were framed. As Munjong[文宗], the successor of Sejong, died from illness in the 2nd year of reign with young crown prince Danjong[端宗] enthroned, however, Jip-hyun-jeon became the center place of power struggle. This made the precedent studies only highlight the division and differences among Jip-hyun-jeon scholars based on their relationship with Sejo[世祖] reign, resulting in the lack of attention to the early form of exchanges among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companionship of the following 6 Jip-hyun-jeon scholars, all of who participated in Saga-dok-seo[賜暇讀書] (a leave program allowed to young scholars to foster talents and encourage academic study) which took place at Samgak[三角] mountain's Jinkwan[津寬] temple upon the order of King Sejong in 1942; Park Paeng-nyun(朴彭年; 1417~1456), Lee Gae(李塏; 1417~1456), Sung Sam-moon(成三問; 1418~1456), Ha Weeji(河緯地; 1412~1456), Shin Sook-joo(申叔舟; 1417~1475), Lee Suk-hyung(李石亨; 1415~1477). For an in-depth analysis, the era and figures were limited to the elite group of early Chosen, through whom the political philosophy and ideology of Sejong can be revealed best.

From the poems the scholars read to each other staying at Jinkwan and Jangeui(藏義)

---

\* Lecturer of Sungshin Women's Univ. / curator98@hanmail.net

temples, we can detect their urgency for not being able to take a chance to participate in the real politics while they expressed their gratitude to the King's grace for the leave. However, as opposed to their worry, after finishing Saga-dok-seo, they ended up monopolizing various national book compilation projects with their outstanding talents, and continued the companionship among them. Considering that, the existing four Yeon-gu(聯句) poems (Yeon-gu poem: a type of poem a number of writers compose together by dividing the stanzas) are noteworthy in that they intensively show the aspiration and writer consciousness of these young 6 scholars as bureaucrat writers.

It is not an easy task to discuss their fellowship exchange based on scarce material. Nevertheless, considering that the interaction circumstance of these 6 scholars were relatively clear despite the limited data, we found it necessary to organize it. However, due to the limited space and capability, we couldn't discuss their public exchanges in depth such as the poet reading with the Chinese envoys and couldn't describe the poem meetings with the prince Anpyung-daegoon(安平大君) or their relationship with Monk Ilam. We believe the companionship aspect of these 6 scholars will come into view with more dimensions if a further study on these takes place.

【Key words】 15th century, Jip-hyun-jeon scholars, Jinkwan temple, Saga-dok-seo

투고일 : 11월 11일, 심사완료일 : 12월 1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